나주배-영주사과 수도권 입맛 잡는다

31일~내달 6일 농협 하나로클럽 5개점서 직판행사

나주시와 영주시가 '아침에 영주사과 & 저녁에는 나주배'라는 슬로건으로 수도권 공동판매에 나선다.

28일 나주시는 "영주시와 함께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주일간 농협 하나로클럽 수도권 5개점에서 '나주배·영주사과 공동 직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지역 거점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와 함께 직판행사를 펼칠 5개점은 서울 양재·창동점과 경기 수원·성남·고양점 등이다.

이번 직판행사는 나주배·영주사과 혼합상품을 추석과 설 외에 연중 안정적인 판로망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마련됐다.

나주와 영주는 산지 생산자와 소비지 유통업체 간 상생기반을 바탕으로, 비수기에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있는 중소과 과실을 3㎏ 이하 크기로 소포장해 저렴하게 판매한다.

혼합상품은 우리나라 대표과일인 나주배와 영주사과를 꽃말인 '연모'와 '희망'과 함께 한 상자에 담아 "서로 사과하면 기쁨은 배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사과의 '독소제거' 효과, 배의 '소화촉진' 기능 등을 의미하는 '아침에 영주사과 & 저녁에는 나주배' 등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개발해 상품화하고 있다.

양 시는 이번 농협 하나로클럽 수도권 직판행사와 더불어 전국의 이마트 매장을 통해서도 배와 사과를 기획상품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했던 공동 마케팅 행사 장면.

한편 나주배와 영주사과 공동마케팅 사업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2013년 창조지역사업'에 선정되어 2013~2014년까지 2년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추석 명절에는 나주배·영주사과 혼합세트 3만6000상자를 팔아 21억8000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바 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현대삼호중공업 본관 신축 기공… 제2도약 다짐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25일 하경진 대표, 김일태 영암군수를 비롯한 내외귀빈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 신축 기공식〈사진〉을 갖고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신축되는 본관 건물은 연면적 3만7000㎡에 지하 1층 지상 10층으로, 2014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이 건물에는 임직원 1000여 명이 근무할 예정으로, 인근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축 건물 외형은 두 개의 삼각형이 중첩돼 있는 모양으로 회사의 로고와 선박의 앞 부분을 닮았으며, 배가 파도를 가르며 앞으로 나아가듯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모든 층에 개폐 창을 적용해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유선형의 건물 외형으로 인한 통풍 효과와 전력 사용량 제어장치, 조명 자동 점등 및 소등 장치, 태양광 설비 등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을 고려한 설계도 돋보인다.

전남에 본사를 둔 기업 중 최대 기업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규모와 기능면에서 지역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과 임직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했다.

현대삼호중공업 하경진 대표는 "회사는 제2의 도약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인재를 확보하고 있다"며 "임직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본관 신축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공직자 청렴리더 양성

장성, 경진대회 개최

장성군이 청렴교육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공직자 청렴리더 양성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군은 28일 "부족한 청렴 강사를 내부적으로 충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달 12일까지 신청자를 접수, 연말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대회는 미리 배부된 지역 출신 청백리인 아곡 박수량 선생과 지지당 송흠 선생의 생애 및 일화 등에 대한 자료(표준 강의안)를 토대로 한 PPT 강의 시연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사는 강의 내용의 정확성과 발표자의 의사표현 능력 등을 고려해 평가하며, 예선과 본선을 걸쳐 최종 3~5명을 선발할 방침이다.

군은 약 2년 전부터 지역이 배출한 청백리를 모티브로 청렴문화 체험교육을 추진, 현재까지 총 184개 기관에서 2만7036명의 교육생이 다녀가는 등 전국적인 인기 몰이에 성공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막바지 가을걷이

오전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져 다소 쌀쌀한 날씨를 보인 28일 강진군 군동면 들판에서 따스한 가을 햇볕을 받아가며 한 농부가 막바지 벼 수확에 여념이 없다. 〈강진군 제공〉

해남군 소통 행정 '눈길'

군수 순방때 건의된 주민숙원사항 88% 이행

해남군은 28일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군수 읍·면 순방 시 이장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주민숙원사항 중 88%가 완료됐거나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순방 시 건의된 민원은 모두 212건으로, 이중 104건이 완료됐고, 83건이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83건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건의사항은 건설방재과 소관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개발과 소관 27건, 친환경농산과 소관 및 해양수산과 소관 각각 1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북평면 이진성지 보전 등을 통한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건의, 화산면 구성과 삼마리 간 도선 운행 의견, 해남읍과 멀리 떨어진 문내면 사무소 내 무인발급기 설치 등이다.

군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건의사항 25건을 부득이 불가한 민원으로 제외시켰다.

박철환 군수는 "이장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얻어진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적기 추진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책임행정, 신뢰행정을 보여 주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무안군, 특혜 논란 전통시장 부지 매입 추진

용도지역 변경 따른 땅값 급등 비난일 듯

무안군이 국비를 지원받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장 위치를 변경하고, 개인 토지소유자에게 지나친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제기되자〈광주일보 10월28일자 11면〉 논란이 됐던 개인 소유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군이 애초부터 시장 입지가 불가능한 토지를 시장부지로 선정하고 용도지역을 대폭 변경하면서 해당 부지는 물론 인근 토지 가격까지 큰 폭으로 상승해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안군의회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무안군은 28일 "신규부지 이전만이 최적안인 실정에서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 야적장으로 쓰이고 있는 개인소유 토지를 협의매입하겠다"고 밝혔다.

무안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 군은 부지 내 재건축, 신규부지 이전, 지난 2002년 지정 시장부지로의 이전 등 3가지 안을 놓고 검토했다. 그러나 현 전통시장 부지 면적이 1만1000㎡에 불과한데다 무단 점유하고 있는 일부 시장 상인들과 법적 다툼 가능성 등이 있다는 이유로, 2002년 지정된 시장부지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각각 제외됐다.

그러면서 군은 현 부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시장이 들어설 수 없는 입지라는 것을 알고도 시장 부지와 그 인근을 준주거지역으로 2단계나 상향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은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만 들어설 수 있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뛰어넘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지역 일각에서는 지난 2002년 지정했던 시장 부지는 접근성이 좋고 교통편도 뛰어났으나 별다른 이유도 없이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002년 지정된 부지는 전통시장 바로 옆으로 건축비 절약은 물론 무안읍 시가지 내에 있었다.

무안군의회 관계자는 "무안군이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지 지켜본 뒤 30일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시장부지에 관련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진도, 강강술래·씻김굿 공개 발표회

진도군은 28일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강강술래와 상장례 문화의 상징인 진도씻김굿의 공개발표회가 진도문화예술제 기간 중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는 매년 문화재청의 후원으로 공개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강강술래 공개발표회는 오는 11월 1일, 씻김굿은 11월2일 진도군 무형문화재전수관에서 각각 열린다.

강강술래는 중요무형문화재 제8호로 진도군과 해남 우수영 등 보존회원으로 구성돼 그동안 원형보존과 함께 활발한 전승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진도씻김굿은 중요무형문화재 제72호로 망자의 넋을 씻겨 그 넋이 극락왕생하도록 하는 천도의례로 진도지역의 다시래기, 진도만가 등과 함께 상장례 문화의 상징이기도 하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